

부모의 경제자본이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사회자본과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the Parent's Economic Capital on the English Language Learner's Social Capital and Achievement in the Middle School

김용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Yong-suk Kim*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eonan 31253, Korea

[요약]

본 연구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소유한 경제자본이 자녀의 사회자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녀의 경제자본 및 사회자본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이 부모의 경제자본에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연구 핵심이며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으로 재분류하고 이 요인들이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본 연구는 경제자본 요인을 위해 부모총소득, 사교육비의 변수들을 포함하였고, 가족내사회자본 요인을 위해 부모소통, 정서적 지원, 학업적 지원 같은 측정 변수들을 사용하였으며, 가족외사회자본을 위해서 학생들의 수업태도, 교사와의 소통, 급우관계 등을 포함시켰다. 3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이 제시되고 잠재성장모형 분석이 이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부모의 경제자본인 부모총소득과 사교육비 모두 영어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나 자녀가 소유한 사회자본에는 사교육비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 두 요인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았으며 가족내사회자본은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주었고 연구모형에서 가족내사회자본은 영어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주었지만 가족외사회자본은 정적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경제자본 중 사교육비는 자녀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으로도 변화하여 자녀의 영어능력에 차이를 만들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s' economic power on the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in the middle school and to clarify whether or not the parents' economic capital was transformed into students' social capital, which would depend upon the parents' economic capital.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degree of the effect of both the students'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on English achievement. Two variables like parents' total income and the education fee for private education were used for the economic capital, and the variables such as the communication with parents, emotional help, academic help were for the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The variable of the 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included students' class attitude, communication with teachers, the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etc. This study provided a research model to get the

<http://dx.doi.org/10.14702/JPEE.2021.00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1 October 2020; Revised 18 April 2021

Accepted 20 April 2021

*Corresponding Author

E-mail: yongkim@kut.ac.kr

answer for the research questions and,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analyzed the initial value and slope of the 3 years longitudinal data as the time went. The result was that both parents' total income and private education for the economic capital had an influence on the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but not on their social capital. The fee for private education of the both variables only impacted the social capital. The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ffected the 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in the research model. The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had a negative effect on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but the 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influenced positively on it. In conclusion, the fee for the private education among parents' economic capital not only affected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but also was changed into their social capital, which made a difference in their English ability.

Key Words: Social capital, Family, Class, Achievement, Language achievement, Private education, Latent growth model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영어 능력은 더 나은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 취업 기회 확대, 연봉의 증가, 신분 상승을 의미하며, 사회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자본 개념은 Bourdieu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이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영어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문화자본은 어떤 사회의 특정 계층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취향 및 언어 등으로 이 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전환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타인에게 전수되기도 한다[1]. Bourdieu의 문화자본 개념은 세가지 단계인 객체화된(objectified) 문화자본, 체화된(embodied) 문화자본, 그리고 제도화된(institutionalized) 문화자본으로 나누어 진다. 교양이나 품위 그리고 언어 등을 의미하는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사람들이 체화되기 위해 일정시간의 환경 노출이 필요하며, 가정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 인지되기 어려운 무형의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체화된 자본이 제도화되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게 되면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될 수 있다[1]. 우리나라 영어 능력도 이미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면서 가정의 역할이 영어에 미치는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2].

우리 사회에서 학생 본인의 노력만으로 영어 능력을 발휘하거나 성취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듯하다[2]. 최선히는 우리나라 대학생 1719명을 대상으로 문화자본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 생활수준,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반면, 부모의 소득, 생활수준, 학력이 낮을수록 영어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3]. 2008년 자료로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높았을 때 토익 점수는 21점 상승하며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될 수 밖에 없는 어학연수는 그 기간이 1주일 길어질수록 토익 점수가 2.5점 상승하였다[4]. 다른 여러 자료들도 가정 배경과 사회적 요인들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한다[5-9].

영어 능력의 차이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결과이기 보다 가정환경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 된다면 우리가 알

고 있는 학생의 영어능력은 가정의 환경 즉, 부모의 경제적 인 능력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와 학생 사이의 신뢰나 도움 그리고 대화 방식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 능력이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화되고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이 문화자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정의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의 영향을 경제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이 두 요인이 문화자본으로 간주되는 영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경제자본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들이 학습자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둘째, 경제자본 요인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 요인과 가정 외 사회자본 요인에 미치는 영향들도 살펴본다. 셋째, 경제자본이 학생의 가정내 사회자본과 가정외사회자본을 매개로 하여 학습자의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분석은 3년의 기간 동안 자료 축적된 종단 자료에 대한 연구이기에 시간 흐름에 따른 각 요인들의 변화를 연구할 것이다.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A.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회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용어이며, 용어의 시작은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주창된 이후 90년대 Putnam에 의해 확산되었다[10]. Bourdieu와 Coleman은 각각 프랑스와 미국 사회의 불평등한 교육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대 들어 연구가 확산되어 왔다[11-14]. Coleman은 화폐나 자산과 같은 물질적 자본 즉 경제자본 개념과 인간의 능력 소유에 대한 인적자본 개념에 더하여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발전시켰다[5]. 1966년 미국에서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Report가 발표

된 이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왔다[5]. 이 보고서는 공교육 하에서 소수인종(minority)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에 대한 연구결과였으며, 학교 정책, 예산, 훈련, 교사 경험 같은 학교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였다. 학교 요인보다 가족과 관련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훨씬 더 중요한 예측 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이었다. 즉, 그 당시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소수인종과 백인 학생들 사이에 가정배경으로 인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경제자본은 화폐나 자산을 의미하며, 인적자본은 개인이 소유한 지식이나 능력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 역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5]. 경제자본이 돈이나 자산을 교환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인적자본도 지식이나 기술 및 개인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유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어떤 목적이나 행위를 위해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소속감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준다. 사회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 인적자본과 같이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무형의 모습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을 발생시키는 집단이나 구성원들 사이에 엄격한 규범이나 규칙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사회자본의 영향력은 강력하여진다.

사회자본 개념은 인문학과 사회학부터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는 용어이며, 이 개념을 보는 시각의 차이도 “정치와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는 만능약”으로 간주하는 것부터 여러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각까지 천차만별이다[10].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학 분야에서 사회자본 개념은 사회망(social network), 자원(resource), 사회적 재생산, 부모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원, 신뢰, 상호작용 등 긍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14].

사회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 가능하며 Coleman은 가족내사회자본(social capital in the family)과 가족외사회자본(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으로 구분하였다[5]. 전통적으로 가족은 구성원의 강력한 신뢰와 쌍방의무관계(reciprocity)하에 있는 사회자본으로 간주된다[15-17]. 사회자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몇 가지 범주를 설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결속(bonding)과 연계(bridging) 개념을 도입하여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계형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결속형 사회자본은 폐쇄적이면서 친밀도가 강한 사회망을 갖춘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감과 가치 공유

를 의미한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강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족 개념이 결속형 사회자본에 포함될 수 있다. 연계형 사회자본은 개인의 범주에서 외부로 확장된 사회 속에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직접적인 연결망은 없지만 구조적공백(structural hole)[18]을 가진 약한 정도의 사회망을 갖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데도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19].

B. 가족내사회자본과 학업성취도

가족내사회자본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 신뢰, 관용, 그리고 지원 정도로 결정된다. 가족내 사회자본은 학교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 성과로도 이어지게 된다[20-26]. 가족내 사회자본은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의 질과 활용 방식에 있어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며 사회의 불평등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26].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및 관계 정도가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원 사이에 관계성을 나타내는 관계적 사회자본은 이 자체만으로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유형의 사회자본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업성취에 더욱 기여하게 되었다[27]. 상호작용 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학업이나 정서적 지원 역시 사회자본에 해당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만 하기보다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지원과 학업적인 지원을 높일수록 경제적 지출 및 학업성취도가 높았지만, 단순한 경제적 지출만 높아질 경우 오히려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28]. 가족내사회자본 변수로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성취 기대를 측정하여 영어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7]. 이 연구 결과는 가정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학습자의 영어학습태도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영어성취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정내사회자본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식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 노력하고, 학업에 대한 지지도 표시하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정서적

¹ 김국태, “구조적공백,”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tc/class876_20060317141629.pdf 구조적공백은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행위자나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면서 각자와 연결관계를 갖고 있는 위치를 의미한다.

인 공감감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기대도 반영하면서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 Schunk와 Meece는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사회자본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자녀들의 성취도에 귀결될 수 있다[29]. 가정환경에서 부모가 학업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이들의 자아효능감도 높았다[30-31]. 부모의 경제자본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었으나,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 주고 있기에 자녀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내에서의 부모의 학업 및 정서적 지지는 중요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32].

C. 가족외사회자본과 학업성취도

가족 내에서 존재하는 사회관계, 즉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지원과 상호작용이 가족을 벗어난 학교에서도 존재한다. 가족외사회자본은 Colema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는 미국의 893개 공립 고등학교, 84개의 카톨릭 고등학교와 27개의 사립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포기 학생들의 비율을 비교하고 카톨릭 고등학교에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3.4%에 그친 반면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탈락률은 각각 14.4%와 11.9%임을 밝혀내었다. 결국, Coleman은 카톨릭 고등학교의 사회망(intergenerational closure)과 같은 가족외사회자본이 탈락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주장하였다[33].

가족외사회자본은 학교의 외형적인 형태에서 초래되는 사회 관계망으로써 사회자본뿐만 아니라 교육자와 학생 관계처럼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도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며 학업성취도와 학급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34-36].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교육자와 학생간의 상호 관계, 교사의 교육 방법이나 특성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시각, 교육자의 학생에 대한 관심, 급우들 사이의 관계, 학교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자와 학생 사이, 혹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와 규범 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관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사회자본의 원천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정보 소통 그리고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규범이다. 학교 교실은 교육자와 학생 사이에 엄격한 규범이 존재하며 학교생활에서뿐 아니라 수업에서도 규범에 의해 움직인다. 안우환은 교사와 학생 관계 사회자본 개념을 “교사와 학생이 학교나 학급이라는 구조

내에서 교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나 행동 변화 등의 유형자본과 무형 자본인 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원”(p. 272)으로 정의한다[14]. 수업에서 규범이 작동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로 귀결된다. 수업 태도가 학생들의 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는 많다[37]. 결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가족외사회자본은 수업 태도와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교육자와 학생 사이에 형성된 사회자본의 양과 질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안우환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상이에 형성된 사회자본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특성이 학생의 특성과 가족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유형을 통제적 관계, 권위적 관계, 포용적 관계로 분류하고 이 중 포용적 관계로 형성된 교사와 학생간 사회자본이 학업 성취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D. 가정내사회자본과 가정외사회자본

청소년 시기에 사회 활동은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은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이 가족 내에서 소유할 수 있는 사회자본 유형은 상담형, 통제형, 그리고 무관심형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사회자본 유형 중 학생들이 소유한 가족내사회자본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가족 내의 사회자본 즉, 가족 내부에서 지지와 신뢰를 활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개인화 성향이 뚜렷하였으며 직업을 구하는 것과 교육 과정에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38].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개방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수용적인 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부모가 자녀와 대화의 양과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39]. 최근 연구는 학벌이나 가족의 구성 형태 등 부모의 구조적이고 외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히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능적인 역할, 즉 가족 구성원 간 대화, 신뢰 등과 같은 것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27,39,40]. 가족건강성과 같은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이 각각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요인의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즉, 가족 구성원 사이에 건강한 기능적 요인의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학교의 관심이나 안전 등 학교 지원 체

계가 낮으면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가정 내 기능적 요인이 낮더라도 학교 지원 체계가 높으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41].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가정 환경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부모의 학력, 가구 소득, 가족 구조와 같은 요인들이 학교의 적응 혹은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생의 정의적 특성이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과 부모 사이에 관계가 긍정적이면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수업 적응을 쉽게하게 된다[42].

E. 경제자본과 영어성취도

부모의 경제자본은 부모의 경제 능력이나 자녀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로 알 수 있으며 이 요인은 학업성취도와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양분 등은 타 과목보다 영어 교과목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주장하며[43], 유한구는 아버지의 직업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점수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8]. 뿐만 아니라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학생의 중학교 입학 초기의 영어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영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었다[7].

입영국과 이종복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했으며 영어 사교육을 받는 목적은 성적 향상이며 학생 27.5%, 학부모 27.5% 그리고 교사 43.8%로 각각 반응하였다[44]. 실제로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총 3,665 가구 중 초중고 자녀가 있는 979가구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는데 그 결과는 가구의 소득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강남 8학군에 거주 여부 등이 사교육비와 관련성이 많았고 사교육비가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III. 연구방법

A. 연구 질문

본 연구 목적은 첫째, 부모가 가진 경제력이 중학생 자녀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부모의 경제력 요인, 자녀의 가정 요인, 학교 요인들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들을 살펴 보며 셋째, 이 요인들의 영향력이 3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구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 1) 부모의 경제자본이 학생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 2) 부모의 경제자본은 가족내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는 어떤 모습을 띠는가?
- 3) 부모의 경제자본이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가?
- 4) 가족내사회자본은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5)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은 학생의 영어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B. 연구가설

본 연구의 문제 제기에 대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경제자본은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자본 변화율에 변화가 있어도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가설 2: 경제자본은 가족내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자본에 변화가 있어도 가족내사회자본은 변화하지 않는다.
- 가설 3: 경제자본은 가족외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자본에 변화가 있어도 가족외사회자본은 변화하지 않는다.
- 가설 4: 가족내사회자본은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내사회자본에 변화가 있어도 가족외사회자본에는 변화가 없다.
- 가설 5: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은 학생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영어성취도에는 변화가 없다.

C. 연구대상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7,414명의 학생들을 8년간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종단

연구2013의 자료 중에서 본 연구는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 이 되던 시점부터 3학년까지 시기에 해당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모아진 중단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중단 자료의 특성 상 결측치가 많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의 목적에 중요한 부모총소득이나 사교육비, 그리고 영어성취도 변수들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자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거나 연구 분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은 연구대상자의 수는 총 3,542명이었다.

D. 측정도구

1) 영어성취도 측정

본 연구는 학생들의 영어성취도 측정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한국교육중단연구2013을 위해 전문적인 검사개발팀에 의해 만들어진 중학교 1, 2, 3학년의 학년간 비교를 위한 수직척도화 작업까지 수행된 문제로 자료 수집된 것을 활용하였다. 검사의 실행 시간은 중학교의 정규 교과시간인 45분간이었다. 문항 수는 26문항으로 모든 검사에는 듣기 문항도 포함되었다. 중학교1학년 검사 결과 통계량은 최소값 1, 최대값 26, 평균 16.22 표준편차는 6.449이었다[46]. 중학교 2학년 총점 평균은 26점 만점에 16.21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501, 최소값은 1점 최대값은 26점이었[47]. 중학교 3학년 영어성취도 검사의 기술통계량은 평균 14.01, 최소값 0, 최대값 26, 표준편차는 6.7007이었다[48].

2) 부모총소득

부모총소득은 부모의 기본 소득에 상여금이나 재산소득 및 생활보조금 등도 모두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질문 문항은 “가정의 월 평균 소득(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도 포함)은 얼마입니까?(세금 제외 전)”과 같이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3) 사교육비

사교육비를 묻는 문항은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월 평균 총 사교육비는 얼마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사교육의 의미는 학원(단과 및 종합반), 과외,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강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단 EBS, 방과 후 학교 및 무료인터넷강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4) 가족내사회자본

가족내사회자본 요인을 위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를 묻는 5개 문항,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 3개 문

항, 그리고 부모의 학업 지원 정도를 묻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해당 문항은 5점 척도 리커트형 문항으로 1점의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의 ‘매우 그렇다’로 이뤄져 있다.

가족 내에서 상호작용을 묻는 문항의 각 연도별 신뢰도는 1차년도는 .854, 2차년도는 .851, 3차년도는 .851이었다. 학생들이 느끼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개 질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문항 질문은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격려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 그리고 정서적 공감과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년도 크론바하 신뢰도는 .917, 2차년도는 .925, 3차년도는 .932이었다. 부모의 학업 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질문의 예는 부모님이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숙제 확인, 공부 방법 조언, 성적 관리, 진로 정보 수집 및 일정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 크론바하 신뢰도는 .854, 2차년도 신뢰도는 .851, 3차년도 신뢰도는 .850이었다.

5) 가족외사회자본

가족외사회자본 요인 구성을 위해 학생의 수업 태도,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개별화 정도, 그리고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 정도, 교사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급우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수업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중단연구2013은 총 5개 문항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수업시간에 떠든다,’ ‘나는 수업시간에 다른 책을 본다,’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나는 수업시간에 휴대 전화를 본다,’ 그리고 ‘나는 수업시간에 즐기거나 잔다’와 같은 총 5개 문항이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 리커트 형 문항이었으며 1점은 전혀 하지 않는다, 2점은 별로 하지 않는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가끔 하는 편이다, 5점은 자주하는 편이다로 이뤄져 있다. 1차년도 자료인 중학교 1학년의 수업태도 5개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크론바하 $\alpha=.682$ 이었으며, 2차년도는 $\alpha=.705$, 마지막 3차년도는 $\alpha=.725$ 이었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개별화 정도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교사가 ‘나의 능력에 맞게 과제를 내어 준다,’ ‘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수업시간에 나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나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준다’와 같은 문항들이다. 1차년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alpha=.894$, 2차년도는 .911, 3차년도는 .918이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는 총 4개 문항으로 점검하였으며 칭찬, 도전, 격려 및 발표 기회 제공 등을 묻는 질문이었다. 1차년도의 신뢰도 크론바하 α 는 .884, 2차년도는

.884, 3차년도는 .891이었다.

가족외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였다. 문항 예로, ‘나의 말을 잘 들어 준다,’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 ‘내가 인사를 하면 다정하게 받아준다’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교사와 학생 관계를 점검하였다. 1차년도 문항 신뢰도 크론바하 α 는 .918, 2차년도는 .925, 3차년도는 .934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외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 시킨 요인은 교우들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들이었다.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로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내 친구들을 믿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의 1차년도 신뢰도는 .915, 2차년도는 .926, 3차년도는 .926이었다.

최종적으로 가족외사회자본을 구성한 5개 요인 즉, 수업 태도,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개별화 정도, 그리고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 정도,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 총 25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1차년도 크론바하 α =.929, 2차년도는 .932, 3차년도는 .933이었다.

E. 분석방법

본 연구 목적은 부모의 경제자본을 나타내는 부모총소득과 사교육비가 3년의 흐름 속에서 학습자들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양상과 사회자본이 영어성취도에 주는 영향력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분석 방법을 택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은 어떤 변수의 변화와 성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49].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연구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매개변수는 사회자본의 개념 중 가족내사회자본 개념과 가족외사회자본 요인이었다.

분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이 추정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측치가 자료에 없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되는 해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모아진 종단자료이며 연구 모형에 들어간 변수 수가 많은 관계로 결

측치가 많이 발생하였다. 우선, 연구 주 목적은 부모의 경제력이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부모의 수업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자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원 자료의 대상자 수는 총 7,324명이었으며 이 중 다른 분석 대상 변수에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중복 기재나 연속적인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와 우연한 실수에 의한 결측자료들을 모두 제거하고 부모의 수업이 0 이상으로 기재된 자료들 외에 모두 제거한 후 연구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5,634명이었다.

그 다음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각 변인들의 자료가 정상분포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료 분석시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상분포가 되기 위해서는 왜도는 2, 첨도는 4보다 작아야 한다. 5,634명 자료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모형에 들어 있는 변수 중 부모총소득과 사교육비가 정상 분포를 보이지 않아 정상 분포를 나타내도록 자료를 최상위 및 최저 부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하였다. 부모총소득이 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며 99만 원 이하이거나 1,501만 원 이상인 자료들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전혀 없거나 180만 원 이상인 자료도 정상 분포를 위하여 삭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축출된 총 3,542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3,542명의 연구 대상 자료 중 남학생 1773명, 여학생 1809명이었다. 자

표 1. 각 집단별 변수의 기술통계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variables of each factor

	전체(N=3,542)			
	평균	SD	왜도	첨도
부모총소득 1차년도	500.12	216.32	1.10	1.89
부모총소득 2차년도	515.09	218.12	.99	1.48
부모총소득 3차년도	531.71	226.65	1.01	1.56
사교육비 1차년도	450.73	235.55	1.08	2.04
사교육비 2차년도	484.96	250.07	1.16	2.11
사교육비 3차년도	522.09	267.51	1.10	1.69
가족내사회자본 1차년도	3.64	.70	-.20	.09
가족내사회자본 2차년도	3.60	.69	-.14	.10
가족내사회자본 3차년도	3.57	.70	-.16	.22
가족외사회자본 1차년도	3.81	.57	.01	-.24
가족외사회자본 2차년도	3.77	.58	.10	-.27
가족외사회자본 3차년도	3.76	.58	.06	-.22
영어성취도 1차년도	18.28	6.01	-.55	-.75
영어성취도 2차년도	17.81	6.10	-.49	-.75
영어성취도 3차년도	15.52	6.65	-.07	-1.12

표 2. 요인의 모형 적합도(N=3,542)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the unconditional model and conditional model of each factor(N=3,542)

		χ^2	df	p	TLI	CFI	RMS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총소득	무변화	45.00	4	.000	.984	.979	.111	514.55***	39237.18***		
	선형변화	4.15	3	.006	.999	.999	.030	499.84***	38814.44***	31.60***	4786.97***
PVF	무변화	120.10	4	.000	.932	.909	.183	482.02***	43131.73***		
	선형변화	10.57	3	.000	.995	.995	.052	450.25***	40818.86***	71.36***	14769.51***
SCP	무변화	23.38	4	.000	.983	.977	.079	3.60***	.30***		
	선형변화	2.17	3	.089	.999	.999	.018	3.64***	.34***	-.08***	.117***
SCC	무변화	25.71	4	.000	.980	.974	.084	3.78***	.20***		
	선형변화	7.49	3	.000	.995	.995	.043	3.80***	.22***	-.05***	.0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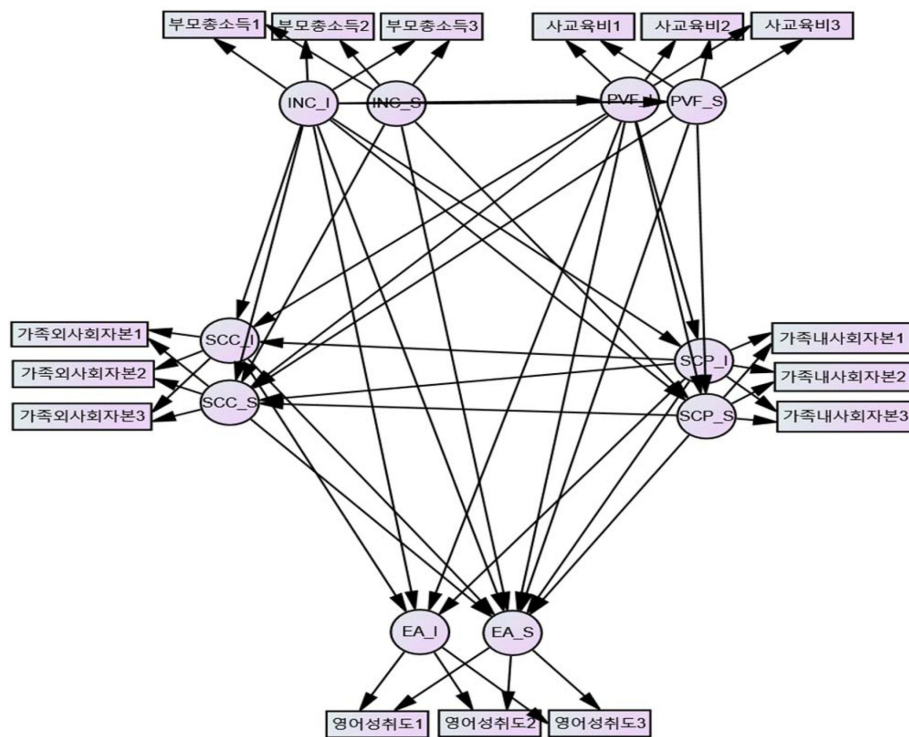


그림 1. 모형

Fig. 1. Research model.

참고: INC_I: 부모총소득 초기값, INC_S: 부모총소득 변화율, PVF_I: 사교육비 초기값, PVF_S: 사교육비 변화율, SCP_I: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SCP_S: 가족내사회자본 변화율, SCC_I: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SCC_S: 가족외사회자본 변화율, EA_I: 영어성취도 초기값, EA_S: 영어성취도 변화율

료의 나머지 변수들의 결측치는 자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수도 작아 평균치로 결측값 대체되었다.

잠재성장 모형 분석을 위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각 변수가 정상 분포를 이뤄야 하며 둘째 각 요인별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모형인지 판

단해야 한다. 첫째 조건을 위해 먼저 학생 3,542명의 연구대상 자료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여 다시 각 변수가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조사하였고 표 1은 그 결과를 보여 준다. 정상 분포가 되기 위해서는 왜도는 2 보다 작고, 첨도는 4보다 작아야 하는 정상 분포 조건을 모든 변수가 충족하

고 있다. 둘째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각 요인별 무변화 모형이 적절한지 선형변화 모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였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세 번의 측정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이 없을 경우 무변화,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일 경우 선형변화 모형이 적절하다. 모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간명 적합지수(CFI)와 증분적합지수(TLI), 그리고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제곱근(RMSEA)들의 지수를 조사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RMSEA 값은 .06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 TLI의 경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된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관성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모형이며 선형변화 모형은 변화가 측정시기마다 일관성 있게 나타날 때 적용되는 모형이다. 그러므로 무변화 모형은 초기치만 존재하고 변화율은 없으며, 선형변화 모형은 초기치와 변화율이 존재하게 된다. 표 2에 근거하면 6개 요인 모두 무변화 모형에서보다 선형변화 모형에서 모형적합도를 위해 TLI 값, CFI 값과 RMSEA 값이 더 좋아졌다. 다만, 영어성취도의 TLI 값과 CFI 값, 그리고 RMSEA 값 모두 무변화 모형에서보다 선형변화 모형에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RMSEA 값이 선형변화 모형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무변화모형을 선택하는 것보다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변화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가설을 모형화한 것이다. 모든 요인의 선형변화 모형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1의 초기 가설 모형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초기가설 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모총소득 변화율이 학생들의 가족외 사회자본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모형에 적합하지 않아 가설 연구모형에서 경로를 제거하였고 사교육비 변화율이 가족내사회자본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모형에 어울리지 않았으며 가족외사회자본 요인의 변화율도 영어성취도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 역시 모형에 포함할 경우 분석이 어려워 연구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 세 경로를 제외한 수정 연구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카이제곱(χ^2) 값은 16.760(자유도=73, p=.000)이었으며, NFI=.960, TLI=.946, CFI=.963, RMSEA=.067로 수정 가설 연구모형이 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기준치를 제공하였다.

IV. 연구결과

A. 연구모형 모수추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3년에 걸친 시간 동안 부모의 경제자본이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경제자본이 학생이 접할 수 있는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에

표 3. 경로별 경로계수 추정치

Table 3. The estimate of regression weights for each path in the model

모수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SE
부모총소득 초기값 → 사교육비 초기값	.526	.520***	.019
부모총소득 초기값 → 사교육비 변화율	.028	.106**	.010
부모총소득 초기값 →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000	.043	.000
부모총소득 초기값 → 가족내사회자본 변화율	.000	.040	.000
부모총소득 초기값 →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000	.021	.000
부모총소득 초기값 → 가족외사회자본 변화율	.000	-.051	.000
사교육비 초기값 →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001	.242***	.000
사교육비 초기값 → 가족내사회자본 변화율	.000	-.060	.000
사교육비 초기값 →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000	-.022	.000
사교육비 초기값 → 가족외사회자본 변화율	.000	-.065	.000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636	.777***	.017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 가족외사회자본 변화율	-.015	-.066	.010
부모총소득변화율 → 사교육비 변화율	.553	.385***	.125
부모총소득변화율 → 가족내사회자본 변화율	.000	-.004	.000
사교육비 변화율 → 가족외사회자본 변화율	.000	-.013	.000

*** p<0.001, ** p<0.01

표 4. 연구모형에서 각 요인 값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추정치

Table 4. The estimate of direct effect of each factor on English achievement in the research model

모수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SE
부모총소득 초기값 → 영어성취도 초기값	.003	.129***	.001
부모총소득 초기값 → 영어성취도 변화율	.000	-.031	.000
부모총소득 변화율 → 영어성취도 변화율	-.006	-.175	.003
사교육비 초기값 → 영어성취도 초기값	.008	.317***	.001
사교육비 초기값 → 영어성취도 변화율	-.001	-.229***	.000
사교육비 변화율 → 영어성취도 변화율	.006	.294**	.002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 영어성취도 초기값	-1.186	-.125**	.389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 영어성취도 변화율	-.369	-.172	.216
가족내사회자본 변화율 → 영어성취도 변화율	-2.494	-.186	1.963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 영어성취도 초기값	3.550	.307***	.472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 영어성취도 변화율	.598	.228*	.248

*** p<0.001, ** p<0.01, * p<.05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사회자본은 부모의 경제자본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서 설명하고 제시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자료들을 분석한 후 경로계수를 측정하고 그 모수추

정치인 결과값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총소득 초기값은 사교육비 초기값에 영향을 주었으며 변화율에도 영향을 주었다($\gamma=.520, p<.001$ 과 $\gamma=.106, p<.01$). 즉, 부모의 경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교육비는 높았으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제력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경제자본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Table 5. The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on English achievement

독립요인	종속요인	효과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부모총소득 초기값	영어성취도초기값	전체효과	.008	.315*
		직접효과	.003	.129**
		간접효과	.005	.187*
부모총소득초기값	영어성취도변화율	전체효과	-.001	-.117*
		직접효과	.000	-.031
		간접효과	-.001	-.087*
부모총소득변화율	영어성취도변화율	전체효과	-.002	-.061
		직접효과	-.006	-.175
		간접효과	.004	.114
사교육비 초기값	영어성취도초기값	전체효과	.009	.337*
		직접효과	.008	.317*
		간접효과	.001	.021*
사교육비 초기값	영어성취도변화율	전체효과	-.001	-.222**
		직접효과	-.001	-.229**
		간접효과	.000	.008
사교육비 변화율	영어성취도변화율	전체효과	.006	.294*
		직접효과	.006	.294*
		간접효과	.000	경로없음

*** p<0.001, ** p<0.01, * p<.05

부모의 소득 변화율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변화율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gamma=.385, p<.001$). 부모의 총소득은 가족내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높아도 가족내사회자본에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의 총소득은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과 변화율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에서 부모총소득 외에 또 다른 경제자본 변수로 활용된 사교육비는 초기값이 높으면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gamma=.242, p<.001$). 그 외 사교육비는 가족내사회자본 변화율이나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과 변화율 어느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은 학생들의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gamma=.777, p<.001$).

표 4는 각 요인들이 학생들의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영어성취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총소득 초기값, 사교육비 초기값과 변화율,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그리고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들은 모두 영어성취도 초기값이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총소득 초기값이 높으면 영어성취도 초기값이 높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득의 초기값이 높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지라도 영어성취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 부모의 경제자본 중 부모총소득과 다르게 사교육비는 초기값이 높으면 영어성취도도 높았지만 초기값이 높을수록 변화율은 점점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교육비가 변화하면 영어성취도의 변화율도 같이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은 영어성취도 초기값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beta=-.125, p<.01$),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것을 표 3에서 살펴보았다.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이 영어성취도 초기값에 영향을 주고 그 변화율에도 영향($\beta=.307, p<.001$ 과 $\beta=.228, p<.05$)을 주는 것으로 볼 때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 그리고 영어성취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 연구모형에서 경제자본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한 가정의 경제자본과 가족내사회자본, 가족외사회자본이 3년의 시간 흐름 속에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하여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연구모형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를 살펴 보았다. 표 5는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 가정의 경제자본은 학생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명백하였다. 그리고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경제자본인 부모의 총소득 초기값과 사교육비 초기값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총소득 전체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gamma=.777$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영어성취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부모의 총소득은 직접적으로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beta=.129, p<.01$). 부모총소득 초기값이 사교육비, 가족내사회자본, 가족외사회자본을 매개하며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에서 부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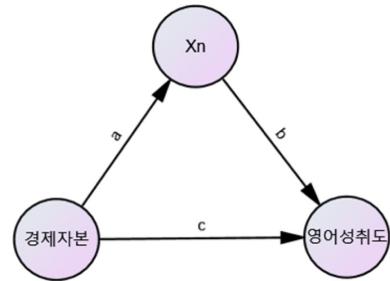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자본과 영어성취도 관계에서 각 요인의 매개효과
Fig. 2. The effect of mediator of each factor between economic capital and social capital.

참고: Xn은 가족내사회자본 혹은 가족외사회자본 요인, a는 경제자본이 매개요인에 주는 직접효과, b는 매개요인이 영어성취에 주는 직접효과, c는 경제자본 요인이 영어성취도에 주는 직접효과

표 6. 경제자본(부모총소득) 초기값과 영어성취도 초기값 사이에 사회자본 요인별 매개분석 효과

Table 6. The effect of the mediator of the social capital between the intercept of economic capital and English achievement

Xn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a	b	c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	.169***	.167***			
가족내사회자본 변화율	.012	경로없음	.142***	.028*	.318*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143***	.248***			
가족외사회자본 변화율	-.102**	경로없음	.282***	.036*	.318*

*** p<0.001, ** p<0.01, * p<.05

소득 초기값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주었다($\gamma=.187, p<.05$). 부모의 총소득 초기값이 높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성취도 변화율은 전체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gamma=-.117, p<.05$ 와 $\gamma=-.087, p<.05$), 부모총소득의 변화율이 영어성취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경제자본 중 사교육비 초기값은 부모의 총소득 초기값과 비슷하게 영어성취도 초기값에 영향을 주었다. 사교육비가 영어성취도에 주는 전체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gamma=.337$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이었다. 사교육비 초기값은 유의수준 .05에서 .129의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에서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gamma=.021, p<.05$). 부모의 총소득처럼 사교육비도 초기값이 높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성취도 변화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gamma=-.222, p<.01$), 부모총소득과 다르게 직접적인 영향력은 있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은 없었다. 그리고 또 부모총소득 경제자본과 다른 점은 사교육비가 변화하는 비율에 따라 영어성취도의 변화율도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면 학생들의 영어성취도도 그 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부모총소득 변화율은 영어성취도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사교육비 변화율은 영어성취도 변화율에 전체효과와 직접효과만 존재하였으며 사교육비 변화율과 영어성취도 변화율 관계에서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이 매개하지도 않았다.

C.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을 매개하여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본 연구의 주 목적인 경제자본이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더하여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으로 변화하여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자본은 부모의 총소득을 변수로 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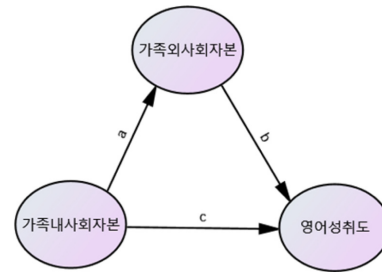


그림 3. 가족내사회자본과 영어성취도 관계에서 가족외사회자본의 매개효과

Fig. 3. The effect of mediator of the 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between the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English achievement.

며 사회자본은 두 가지 요인 즉,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 요인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는 매개분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경제자본, 가족내사회자본, 영어성취도 요인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카이제곱(χ^2) 값은 10.251(자유도=23, $p=.000$)이었으며, NFI=.987, TLI=.981, CFI=.988, RMSEA=.051로 나타나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가정내 사회자본 대신 가정외 사회자본을 매개효과로 하여 모형을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χ^2) 값은 9.349(자유도=24, $p=.000$)이었으며, NFI=.987, TLI=.983, CFI=.989, RMSEA=.049이었다. 두 모형 모두 연구에 적절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표 6에 의하면 가족내사회자본 요인은 경제자본과 영어성취도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존재하였으며($\gamma=.028, p<.05$), 가족외사회자본 역시 매개 효과가 있었다($\gamma=.036, p<.05$). 표 6은 경제자본 즉 부모의 총소득이 높으면 학생의 가족내사회자본 초기치는 높았으며($\gamma=.169, p<.001$)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는 없었다. 부모의 총소득이 높으면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에 영향을 주었으며($\gamma=.143, p<.001$)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율은 낮아졌다($\gamma=-.102, p<.01$).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둘 다 영어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7.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과 영어성취도 초기값 사이에 가족외사회자본 매개분석 효과

Table 7. The effect of the mediator of the 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between the intercept of the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English achievement

Xn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a	b	c		
가족외사회자본 초기값	.749***	.269***			
가족외사회자본 변화율	.016	경로없음	.013	.201**	.214*

*** $p<0.001$, ** $p<0.01$, * $p<0.05$

가족내사회자본은 영어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가족외사회자본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 두 요인이 경제자본과 영어성취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두 요인은 영어성취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도 정적 영향을 보였다. 전체모형과 개별 매개효과 분석에서 가족내사회자본 요인이 영어성취도에 주는 직접효과가 전체모형에서는 부적효과, 개별 매개분석에서는 정적효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족내사회자본과 학업성취도 관계는 타 요인의 영향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D. 가족내사회자본이 가족외사회자본을 매개하여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표 6에 의하면 경제자본이 학생의 가족내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료 분석되며, 가족내사회자본이 가족외사회자본을 매개로 하여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림 3은 그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7은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내사회자본 초기값은 학생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beta=.013, p>.05$), 가족외사회자본은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gamma=.269, p<.001$). 한편, 가족내사회자본은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면서($\gamma=.749, p<.001$) 결국 영어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주었다($\gamma=.201, p<.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첫째 가설은 가정의 경제자본이 학생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해 경제자본으로 사용된 두가지 변수는 부모의 총소득과 사교육비였다. 이 연구 가설에 답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중학생 종단연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부모총소득과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총소득의 증가는 영어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사교육비 증가 폭은 영어성취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사교육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어성취도도 높아지는 모습이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총소득이 높으면 사교육비도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사교육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다. 부모의 경제자본 요인만으로 자녀의 영어성취도가 증가

하고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며 소득격차가 교육격차 혹은 영어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50]. 임여국과 이종복은 사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인식조사에서 최근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성적향상과 미래에 대한 준비 및 실력향상이라 주장하였다[44]. 그러므로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흥미를 낮추거나 또다른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공교육이 가정의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의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공교육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둘째 그리고 셋째 가설은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회자본은 본 연구에서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으로 재 분류되어 각각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연구 질문은 경제자본이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가 이었다.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부모의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이 서로 독립된 요인으로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비록 부모의 경제력이나 개인의 능력이 떨어질지라도 사회자본 능력이 높은 학생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자본 능력을 활용하여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자본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는 계층 위화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부모의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 부모총소득과 사교육비 두 경제자본 측정변수 중 부모총소득은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총소득과 다르게 사교육비는 자녀들의 가족내사회자본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 분석에 의하면 부모의 총 소득이 높을지라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와 소통을 잘하거나 부모로부터 격려나 정서적인 공감을 받고 이해 받는 정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부모의 경제력 수준이 높다하여 부모가 제공하는 공부분위기나 숙제 확인 그리고 공부 방법 등 학업과 관련된 정보나 지원을 높게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자본을 나타내는 또 다른 측정변수인 사교육비는 부모총소득 변수와 다르게 사교육비가 높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과 학업 지원을 가정 내에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나타내는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가족외사회자본은 학교에서 학생이 생활하는 수업태도, 학생이 받아들이는 교사 수업에 대한 개별화 정도,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급우 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경제력은 한 집단 내에서 신뢰와 엄격한 규범 속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과 신뢰가 높아지는 Coleman의 사회자본과 같이 학교에서 수업 태도나 교사와 다른 급우들과의 관계 등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가설[5]은 아직까지는 본 연구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모형에서 경제자본을 나타내는 부모총소득과 사교육비는 학생의 가족외사회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넷째 가설은 가족내사회자본이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가족내사회자본이 높으면 가족외사회자본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흘러도 이 현상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즉, 가정내에서 부모의 건강한 대화 방식, 학생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이나 학업 지원 등이 높으면 학생이 학교에서 급우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업 태도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의 총소득이 이 두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사회자본은 경제자본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교육비는 가족내사회자본에 영향을 주고 가족외사회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모의 경제자본과 자녀의 사회자본 관계를 고려할 때 부모의 총소득과 사교육비를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가 높으면 가족내사회자본이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족외사회자본으로 연결된다고 보인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경제자본이 아주 은밀하게 학생들의 사회자본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총 소득이 높아도 교육열이 낮거나 가족내의 건강한 사회자본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나 부모총소득이 높으면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으며, 자료 분석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높아질수록 가족내사회자본이 높아지고 가족내사회자본은 가족외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넷째 가설은 본 연구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지막 연구 가설은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이 학생의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 모형에서 두 사회자본이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내사회자본은 영어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가족외사회자본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내사회자본과 가족외사회자본 두 요인이 경제자본과 영어성취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두 요인은 영어성취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도 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족내사회자본이 가족외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상태에서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분석에서는 가족내사회자본은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내사회자본 요인은 영어성취도와 영향력 분석에서 어떤 분석 모형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져 요인의 영향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부모의 경제력이 높다하여 가정내의 건강한 대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 지원이나 정서적인 지원 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자본과 두 사회자본은 독립적으로 작동되고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이 높으면 그 자녀는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경제력에 비례하여 사교육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교육비가 높은 학생들은 가정내에서 부모의 정서적인 지원부터 학업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이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높아진 사회자본은 학생들의 영어성취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는 한 인간의 능력과 지식 정도를 보여주는 인적자본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다. 이 영어가 이제 문화자본화 되어 각 가정에서 이뤄지는 사회자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영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문화자본화된 영어가 은폐된 상태로 학생의 개인 능력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제자본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영어가 고소득층의 문화로 체화(embodied)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사교육의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교육과 같은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며 가정의 사회자본이 학교에서의 사회자본으로 변화되어 결국 영어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과정 역시 문화자본의 은폐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자본으로 시작하여 가정내에서의 사회자본에 영향력을 주고, 이 요인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가정외사회자본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며 결국 학생의 영어 능력 격차로 은밀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희삼은 한 사회가 경제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의 소유를 각각 독립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구조이고 서로 간에 완전히 동조화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 불평등과 위화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 유형의 자본이 서로 동조하는 성질이 강화되어

경제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사회자본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사회 내부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절망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51].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본 연구 자료 분석에 의하면 높은 교육열에 의한 사교육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이 독립적으로 작동되고있음도 알 수 있어 희망이 있다.

학교는 이미 내신 등급을 앞세운 학생들 사이에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학생을 경쟁으로 밀어 넣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학교의 공간이 교육자와 서로 신뢰를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를 신장시켜 나가기보다 서로 간에 불신과 상호 견제 및 경쟁이 각 학급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등이 한 계층에서 독점하며 동질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와 같이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 즉 교육 내용에만 신경을 기울여 학생 사이에 경쟁을 부추긴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의 동질화를 재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희삼은 동구권 국가,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은 수직적 판서형 수업이 빈번하고 학생들 사이 협동은 낮은 반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면서, 수직적 판서형 수업을 하는 국가는 사회자본이 약화되었고 협조 수업을 강조하는 나라는 학생들의 사회자본이 강화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동구권 교육 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51].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의 특성이나 자질에 의해 학생들 사이에 협동이나 신뢰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채택하는 수업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51,52]. 즉, 교사효과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교사일지라도 수업의 방식을 다르게 채택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자본 능력은 달라짐을 주장하였다.

공교육이 교육내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사회와 학교는 경제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이 동질화되고 공교육이 스스로 학생들에게 사회자본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공교육 주체들인 교육자들이 사회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김희삼의 몇 가지 조언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생들의 사회자본 향상을 공교육이 책임질 수 있고 역동적이고 행복한 사회로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쟁의 개념을 마냥 사회자본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쟁을 교육에서 그 내용과 방식이 공정한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학생을 주입식 교

육대상으로만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수평적 주체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보면 가족내사회자본이 영어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반면 가족외사회자본 즉 학급에서의 사회자본은 직접적으로 영어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경제자본이 가족내사회자본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가족외사회자본 즉 학교생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경제자본과 독립적으로 가정내에 건강성이 회복되어 이 자체가 학생들의 가정외사회자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교육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연구진흥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1]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1986*, J. G. Richardson (Ed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6.
- [2] T. Y. Kim, "The sociocultural of English learning and its implication to English education: Four sociological approache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 41, no. 3, pp. 106-134, August 2015.
- [3] S. B. Choi, "The study of English ability of Korean society in the view of cultural capital: How college students learn English and consider fluent English speakers,"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vol. 11, pp. 5-21, December 2003.
- [4] H. S. Kim, "The phenomena of the gap in English and task to solve the problem," in *Proceeding of the 2010 Conference on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Seoul: KSSA, Spring 2010.
- [5] J. S. Coleman, E. Q. Campbell, C. J. Hobson, J. McPartland, A. M. Mood, F. D. Weinfeld, and R. L. York,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 [6] Y. B. Kim, S. S. Kim, S. J. Kang, H. C. Kim, J. H. Shin, and S. H. Park,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II)-School Exper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 of 1st Grade Student in Middle School-, Seoul: KEDI, December 2006.
- [7] H. J. Park and Y. H. Kim, "The effect of family's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A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0, no. 4, pp. 55-82, December 2010.
- [8] H. K. Yoo, *Social Stratification and Educational Gap*, Seoul: KRIVET, October 2006.
- [9] H. J. Im, Y. B. Kim, S. S. Kim, K. M. Lee, Y. L. Lee, and E. A. Youn,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V)*, Seoul: KEDI, June 2009.
- [10] S. J. Kim, "A critique of Bourdieu's, Coleman's and Putnam's concept of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38, no. 6, pp. 63-95, 2004.
- [11] H. S. Kim, "Even the social capital-the conformity of the social capital, economic capital, human capital," October 19, 2020 [Online]. Available: <http://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1135>.
- [12] H. J. Park and Y. H. Kim, "The effect of family's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A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0, no. 4, pp. 55-82, 2010.
- [13] J. H. Shim, S. Kim, and K. K. Kim,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at school and attitude toward affirmative actions in college admiss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30, no. 2, pp. 43-73, 2020.
- [14] W. H. An, "Effects of teacher-students' relations social capital on student achieve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8, no. 3, pp. 269-289, September 2007.
- [15] R. Prandini, "Family relations as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45, no. 2, pp. 221-234, May 2014.
- [16] P. Donati and R. Prandini, "Family and Social Capital: European Contribu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Revue Internationale de Sociologie*, vol. 17, no. 2, pp. 205-208, July 2007.
- [17] P. Donati and R. Prandini, "The family in the light of a new relational theory of primary, secondary and generalized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Revue Internationale de Sociologie*, vol. 17, no. 2, pp. 209-223, Jun 2007.
- [18] K. T. Kim, "Structural hole," October 19, 2020 [Online]. Available: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tc/class876_20060317141629.pdf.
- [19] B. Lancee, "Social capital theory," in *Immigrant Performance in the Labour Market: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ch. 2, pp. 17-32, 2012.
- [20] K. K. Kim, "Educational gap in Korea and determin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5, no. 3, pp. 1-27, 2005.
- [21] S. Y. Byun and K. K. Kim,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 achievement: Focusing on differential effects by family socioeconomic statu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8, no. 1, pp. 39-66, 2008.
- [22] J. Y. Chung and Y. H. Jeong,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levels on the student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7, pp. 73-93, July 2015.
- [23] J. Y. Hyun and K. K.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at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varying relationships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5, no. 2, pp. 125-154, 2015.
- [24] Y. S. Jung and K. A.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ome environment and private education on English learning abilities,"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20, no. 2, pp. 273-295, June 2008.
- [25] J.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26] Y. H. Kim, *Sociology of Education*, Seoul: Kyoyookbook, 2010.
- [27] S. R. Han and A. Kim, "Social capital and the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The interrelated effects of families and school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8, no. 2, pp. 157-182, June 2018.
- [28] J. H. Shin, H. Y. Hwang, and E. J. Seo,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self-regul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1, no. 4, pp. 249-264, December 2010.
- [29] D. H. Schunk and J. L. Meece, "Self-efficacy development

- in adolescence,” in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F. Pajares, and T. Urdan (Eds.),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06.
- [30] Y. Choi, H. S. Shin, and S. J. Lee, “The 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 and self-efficacy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26, no. 1, pp. 69-80, March 2014.
- [31] S. Turner, J. C. Steward, and R. T. Lapan,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sixth-grade adolescents’ math and science career interes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53, no. 1, pp. 41-52, September 2004.
- [32] Y. S. Kim, “The effect of the variables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the English self-efficacy and the language learner’s achievement in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30, no. 4, pp. 181-205, December 2018.
- [33]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s95-s120, January 1988.
- [34] M. H. Kang, Y. R. Yoo, and J. W. You,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rning achievement, school satisfaction, perceived teacher attitude, and learning attitude for high school students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5, no. 1, pp. 181-203, March 2014.
- [35] Y. B. Kim, H. J. Im, and N. O. Kim, “An analysis on class and teacher level variable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9, no. 2, pp. 157-179, 2012.
- [36] S. J. Lee, “The path analysis of teacher- student relationships, class climate, and learning flow on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3, no. 4, pp. 207-227, 2010.
- [37] J. C. Shin, T. S. Shin, and J. S. Jung, “Causal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fact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8, no. 1, pp. 287-313, 2008.
- [38] S. Kovacheva, “The role of family social capital in young people’s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Bulgaria,” *Sociologija*, vol. 46, no. 3, pp. 211-226, 2004.
- [39] Y. A. Jang and J. H. Park,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3, no. 2, pp. 69-85, May 2008.
- [40] J. Y. Lee and K. A. Lee, “Individual and financ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6, no. 2, pp. 261-276, May 2004.
- [41] H. R. Kim and S. H. Choi,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school-related facto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30, pp. 159-182, December 2009.
- [42] J. Y. Lee, “An analysis of individual and school characteristics affecting school mal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middle schools in Busa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5, no. 5, pp. 245-274, December 2017.
- [43] Y. B. Kim, S. S. Kim, S. J. Kang, H. C. Kim, J. H. Shin, and S. H. Park,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I) - school exper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1st grade student in middle school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RR2006-22.
- [44] Y. Im and J. B. Lee, “Perception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bout private English education,”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 64, no. 1, pp. 193-220, February 2020.
- [45] I. J. Chung, “Social class predictors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their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in Korea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35, pp. 73-98, August 2011.
- [46] Y. B. Kim, J. Y. Namgung, K. H. Park, I. H. Choi, H. S. Kim, M. S. Kim, and G. Y. Lee, “2017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13(IV): The report of overview about surve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TR2016-01, 2016.
- [47] J. Y. Namgung, K. H. Park, H. J. Kim, Y. B. Kim, G. M. Lee, and H. J. Im, “2017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13(V): The report of overview about surve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TR2017-70, 2017.
- [48] J. Y. Namgung, H. J. Kim, K. H. Park, S. W. Song, Y. B. Kim, and G. M. Lee, “2017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13(VI): The report of overview about surve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TR2018-137, 2018.

- [49] J. W. Kim, M. K. Kim, and S. H. Hong, *Writing an Article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Communication Books Co., 2009.
- [50] Y. K. Jung and K. W. Cha, "An investigation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private English education in Korea,"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32, no. 4, pp. 141-160, 2014.
- [51] H. S. Kim, "The role of education in social capital and policy directions," KDI, Sejong, Research Report 2017-06, 2017.
- [52] Y. Algan, P. Cahuc, and A. Shleifer, "Teaching practice and social capital,"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5, no. 3, pp. 189-210, 2013.



김 용 석 (Yong-suk Kim)_정회원

1988년 2월 : 부산대학교 영문학 석사 졸업
1998년 5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 졸업
1999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직
<관심분야> 심리언어학, 영어교육, 대학정책 등